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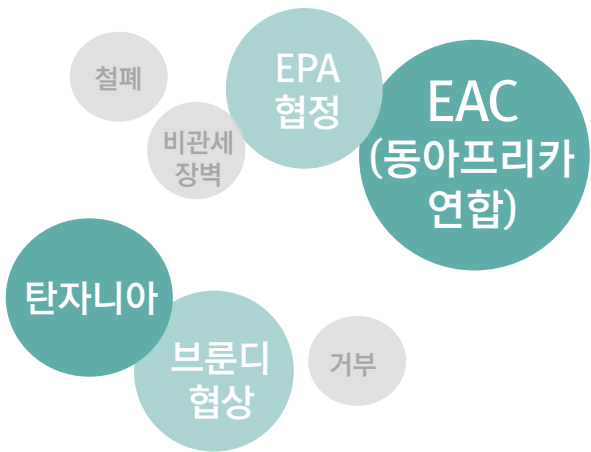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7년 1월 ~2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EAC, EPA 협정, 탄자니아, 비관세 장벽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EAC, EPA 협정, 탄자니아, 비관세 장벽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탄자니아 포함 EAC 이해 관계 충돌로 인해 EPA 협상 난관”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탄자니아, 비관세 장벽 철폐 대립

EAC(East African Community)의 탄자니아는 EAC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관세 규정을 가진 국가라는 비난을 받으며 EU와 함께 전면 과세와 비관세 장벽 철폐를 통해 더 큰 자유 무역 시장을 만들기 위한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에 차질을 빚고 있다.

탄자니아에 수출입 품목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등록 후에도 연 유지비 및 5년마다 갱신이라는 제한 조건이 붙는다. 뿐만 아니라 EAC의 보고에 의하면 이달 2일 탄자니아 식품 및 의약품 관리를 TFDA(Tanzania Food and Drugs Authority)가 주사 의약품 및 타 제품들에 한 패키징 당 등록을 요구하면서 케냐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EPA는 2016년 10월 협상을 마무리 할 예정이었으나 탄자니아와 부룬디의 거부로 2월 2일로 협상이 미뤄졌다. 탄자니아는 현재 산업화를 정부 최우선 과제로 추진중이기에 EPA가 자신들에게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상에 우호적이지 않은 또다른 국가인 우간다의 대통령은 여전히 EAC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으며, 탄자니아 측과 이번 달 말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EAC는 EPA를 통하여 시장 개방 활성화 및 확대를 이루어 투자촉진 등 무역창출효과를 실현하고 수출 품질기준 향상으로 외국인투자 유입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이 협정이 불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지역 산업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는 반대에 부딪히며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나 EPA는 동아프리카가 최빈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일 수 있기에 꾸준한 협상 시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기업 또한 EPA가 체결되면 아프리카 시장의 80%를 유럽에 개방하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아프리카에 공장 기지를 건설하여 인건비를 낮추는 등 효과적인 수출 판로 개척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은 2월 말에 열릴 EAC 정상 회담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의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